

##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lt;72&gt;

## 書皆焚之

서개분지

편지는 모두 태워버려라



권 중 달(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국회는 개원식도 하지 못한 채, 여야(輿野)가 사생결단(死生決斷)하겠다는 모습으로 대치하고 있다. 겉으로 민생(民生)을 말하고 있지만 당리당략(黨利黨略) 앞에는 민생은 그저 구두선(口頭禪)이다. 여당은 행정권을 쥐고 야당은 입법권을 쥐고서 상대의 맡은 짓으로도 듣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여야는 각기 단결은 되는가? 그것도 아니다. 계파가 다르면 말이 서로 안 통하는 것은 여야 대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를 통합하고 국제무대에서 국가를 대표하여 경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나와 다른 의견을 정성껏 청취하는 군자(君子)의 태도를 보이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요컨대 대인(大人)이 없다. 그래서 이를 보는 사람은 때로는 절망(絕望)에 빠진다.

이런 것을 볼 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익숙한 삼국지(三國志)에 나오는 인물들을 생각하게 한다. 삼국지는 세 나라의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후한(後漢) 말 한제(獻帝) 시대의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의 내용이 사실(史實)과 같고 다름을 보려면 자치통감에서 후한 헌제시기를 들쳐 봐야 한다.

후한 말 가장 강한 세력을 가진 사람은 동탁(董卓)과 원소(袁紹)였다. 동탁은 서부 세력의 중심인물이고, 무력으로 가장 강하여 일시적으로는 누구도 그에 대항할 세력이 없었지만, 도읍인 낙양에서 황제를 끌고 스스로 자기 근거지인 장안으로 가서 가족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려는 퇴영(退慶)적 태도가 스스로 세력을 약화(弱化)시켜 역사에서 사라진다.

또 하나의 세력은 후한 말 모든 사람의 원한의 대상이었던 삼상시를 목 뱀으로 동부 지역의 강자가 된 원소이다. 그는 서부 동탁의 발호에 대항하자는 동부 세력들이 모여서 맹주(盟主)로 추대하였으니 이쯤 되면 역사의 주인공이 될 만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조조(曹操)와 관도(官渡)의 전투(戰鬪)에서 패하고 뒤이어 창정(倉亭) 전투에서 연속 패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하였으니 그 또한 실패자다.

사실 원소가 조조와 대결할 때 원소의 세력은 조조에 비하여 월등하였다. 원소는 이미 당시 또 다른 강한 세력인 공손찬(公孫瓚)을 패배시키고 중원의 중요한 기주(冀州), 범주(幷州), 유주(幽州), 정주(青州) 네 개 지역을 점령하여 거대한 세력을 일구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조가 헌제를 끌고 허현(許縣)을 점거하고 있었으니 원소는 반드시 이를 제거해야 했다.

그런데 원소는 공손찬을 꺾고 나자 기고 만장(氣高萬丈)하여 허현에 있는 조조를 공격하려고 하였다. 그때 원소의 밑에 있던 저수(沮授)가 '우리 군대는 공손찬을 이기고 나자 교만한 군대가 되었으니 허현으로 조조를 공격하려면 실패합니다.'라고 하였다. 병법(兵法)에 고군(驕軍)이 실패한다는 이론을 가지고 반대한 것이지만, 원소는 자기 말을 거역한 저수를 미워하여 그의 군대 3분의 2를 빼앗아 버리었다. 뻘 minden(眞)이었다.

이러한 원소가 또 다른 세력인 장수(張繡)와 연합하려고 하였을 때 장수 밑에 있던 가후(賈胡)가 '원소는 형제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천하의 인재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대하였다. 원소는 장수와 연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을 알고 그와 연합하려 했지만, 원소의 뻘 minden(眞)을 본 기후는 원소에게 희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그가 모시는 장수에게 원소를 택하지 말도록 권고한 것이다.

이러한 원소의 뻘 minden(眞)은 기회가 찾아와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원소에게 그가 제거하려는 조조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조조에게 이익하였던 유비(劉備)가 조조로부터 위협을 느껴서 도망하자 조조는 직접 유비를 치려고 허현을 나섰기 때문이다. 이때 원소의 측근인 전풍(田豐)이 '조조와 유비가 맞부딪쳐서 허현이 비게 되니 이때 허현을 공격하자.'라고 하였지만, 원소는 아들이 아프니 할 수 없다는 말로 거절하였다. 그에게 다가온 좋은 정책을 수용하지 못하였다. 이를 본 전풍은 '기회를 놓으니 애석하다.'라고 했다.

그런데 뒤늦게 조조가 이미 유비를 치고 허현으로 돌아왔을 때 가서야 허현의 조조를 공격하려고 하였다. 이를 본 전풍은 이미 조조가 돌아왔으니 직접 공격하여도 성공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하면서 다른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기습병(奇襲兵)을 동원하여 조조를 3년만 과롭히면 조조를 이길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정책을 받아들이기는 커녕 전풍을 형틀에 묶었다. 이를 본 원소 주위에 있던 인물들은 더 이상 원소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떠났다.

어쨌든 결국 원소와 조조는 부딪쳤다. 군사의 수나 군량이라는 조건에서는 아직도 원소가 조조보다 매우 우세하였다. 그리하여 전장(戰場)에서 조조는 힘들게 버티다가 너무 힘들어 물러나고 싶은 생각을 하였다. 이때 원소 진영에 있던 허유(許攸)가 조조 진영으로 도망해 왔다. 허유 집안사람이 법을 어기자 원소의 참모 심배(審配)가 그를 불잡아 가두었고 이에 화가 난 허유는 마침내 조조에게로 도망해 온 것이다. 조조는 맨

발로 나가 허유를 맞았으니 원소의 뻘 minden(眞)과 조조의 뒤집어(眞)가 극명하게 보여 주는 예이다.

허유가 조조에게 말하였다. '공(公)의 고립된 군대는 헐로 지킬 뿐, 밖으로는 구원군이 없고 양쪽도 이미 다하였으니 위급한 때입니다. 원씨는 치중(蠶重)이 1만여 송이나 되지만, 고시(故市)·오소(烏巢)에 있는데 주둔군의 대비가 삼엄하지 않으니, 만일 경무장한 병사들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게 기습하여 그곳에 쓰아놓은 치중(蠶重)을 불태우면 3일 안에 원소는 저절로 패할 것입니다.'

조조의 뒤집어(眞) 정치가 상대인 원소의 약점

을 파악하게 하고 이를 공격하는 방법까지 제시하게 한 것이다. 결국 관도의 전투에서 원소는 패배하였고 조조는 전세(戰勢)를 역전시켰다. 그리고 조조가 원소의 근거지가 되는 진영을 점령하여 원소가 남기고 간 편지 봉당이를 발견하였다.

그 편지를 거두어 보니 그 속에는 허현

에서 조조의 휘하에 있던 사람 가운데 후에 원소가 승리하였을 때를 생각했는지 원

소에게 보낸 편지가 상당수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조조는 자기 휘하에는 자기를 배반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몹시 화도 났을 것이다. 하나님나라 찾아서 처벌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조조는 일반적인 사람의 태도와 달랐다. 그는 편지 보지도 않고 '모두 불태워라. 당시에 원소가 강하였으니 나 스스로 보존하기 어려웠는데 보통 사람아이 살려고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승패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있던 나약한 자기 부하를 이해하고 나약하지만 계속 쓰려고 한 것이다. 뻘 minden(眞)은 뒤집어(眞)로 바꾼 조치였다.

후에 조조의 아들 조비는 헌제의 선양(禪讓)을 받아 위(魏)왕조를 열 수 있었던 기조는 조조가 쌓은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태산은 티끌을 작다고 마다하지 않고, 바다는 시냇물이 하찮다고 보지 않고 받아들여서 태산은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다는 말을 곧잘 한다.

다시 사생결단하고 싸우는 여야와 그 내부의 갈등을 보면 이들에게 원소의 뻘 minden(眞) 정치는 있을지언정 조조의 뒤집어(眞) 정치를 실천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보인다. 이른바 민주당의 친명, 비명, 편명이 모두 그렇다. 국민의 힘도 친윤, 비윤, 비한, 친한 같이 경쟁상대의 흡집 찾아내기에 혈안이다. 조그만 흡집이 있어도 내쳐버리는 전형적인 뻘 minden(眞) 정치이다. 그래서 상대를 이긴들 그 이미 빠져버린 힘으로 더 큰 싸움에서 상대를 이길 수 있을까?



권태경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그런데 합곡관의 관문은 첫닭이 울어야만 열 수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다. 악절부절못하고 있을 때 닭울음소리의 달인이 '꼬끼오'하고 닭 소리를 냈다. 그러자 집집마다 닭들이 소리내어 울고 병사들은 관문을 열었고 맹산군 일행은 부리나케 빠져나가 사라졌다. 얼마 후 진나라의 주객대가 도착했으나 허탈을 치고 맹산군은 탈출에 성공하였다. 맹상군은 "내가 목숨을 구한 것은 이들 계명 구도 덕택이다"라고 공을 세운 사람들을 추켜 세웠다.

## 계명구도(鷄鳴狗盜)

닭 계. 울 명. 개 구. 도둑 도.

뜻 : 닭 울음소리 잘 내는 사람과 개처럼 담장을 넘어 춤도둑질하는 사람이라는 뜻. 하찮은 재주를 가진 사람도 쓸모 있을 때가 있음을 말함.

유래 : 전국시대 제나라의 맹상군은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손님 대접이 후하기로 소문이 났다. 무엇이든 한가지 재주가 있으면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후대해서 그의 저택에는 3천명의 식객이 들끓었다고 한다.

맹상군이 진나라 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만 음모에 빠져 구금을 당하고 목숨이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대책을 세우던 중 진나라 왕의 애첩에게 구명운동을 하였고 애첩은 맹상군이 진나라 왕에게 선물하였던 호백구 한 벌을 요구하였다. 맹상군은 부하들과 상의하였고 해결방법으로 보물창고에 들어가 호백구를 훔쳐내기로 했다. 그날 밤 도둑의 달인은 개 가죽을 뒤집어쓰고 대궐 보물창고에 들어가 호백구를 감쪽같이 훔쳐내는데 성공했다.

맹상군은 진왕의 애첩에게 호백구를 주었고 애첩은 진왕에게 맹상군을 풀어주도록 설득하여 풀려나게 되었다. 위기에서 풀려난 맹상군은 진왕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급히 마차를 몰아 한밤중에 합곡관에 도착했다.

닭 계. 울 명. 개 갈지. 도둑 조.

어질고 현명한 왕비의 내조를 이르는 말

예전에 어진 왕비는 새벽에 만드는 말이 울었으나 일어나라고 권하여 왕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정사를 보도록 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 고광지신(鷄鳴之助)

넓적다리고. 팔뚝 풍. 갈지. 신하신.

다리와 팔같이 중요한 신하라는 뜻으로 가장 신임하는 신하를 뜻함

유래 : 순(舜)임금이 신하들을 둘러보며 "그대들과 같은 신하는 집의 팔다리요 눈과 귀로다. 내가 백성을 교화시키고 돋고자 하니 그대들도 잘 도와주시오. 나에게 잘못이 있으면 총고해주고 모든 동료들이 서로 공경하고 예의를 지켜주오. 그리고 관리는 백성의 뜻을 집에게 전하는 것이 임무이니 올바른 이치로써 선양하고 뉘우치는 자는 용서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처벌하여 위엄을 보이도록 하시오."라고 당부하는 데서 유래함.

## 2024년 제3차 능동장학회 이사회 개최



재단법인 능동장학회(이사장 권정달)는 7월 23일 11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고봉산계탕에서 2024년 제3차 이사회를 권정달 이사장, 권영창·권영선·권정선·권오형 이사와 권영훈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원보고, 개회선언, 시조 태사공에 대한 맹배, 업무현황 보고, 이사장 인사말씀, 안건 심의 및 토의사항 순으로 개최하였다.

감사 연임 안건 심의에서는 권영훈 감사와 권봉도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연임 여부를 묻는 안건을 상정하여 모두 연임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권오상 사무총장은 능동장학회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었다. 등록이 완료되면 지정기부금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정달 이사장은 권승렬 장관이 처음 땅 팔아 재원을 마련했고, 그 다음 여러 차례 여러분이 조금씩 보태서 기금이 모아졌으니 기금 마련에 대한 경위를 홈페이지에 등재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영창 이사는 지금까지는 지정기부금 등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기부해도 세무 혜택도 받지 못했는데 이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세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다 준비되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의 이자만으로 몇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능동장학회의 역할이 아니라고 본다. 기금을 늘려야 한다. 장학회가 기금조성에 결의하고 앞장서 줘야 한다. 장학금 기금 목표를 세워서 재력가들이

기금 모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모금 운동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기금이 어느 정도 돼야 그 이자로 보다 많은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오형 이사는 장학생 수혜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주고 끝내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되고 있다면 1976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니 지금쯤 그 수혜자들도 장학금을 기부할 정도로 상당한 사회적 위치에 있을 것 같다. 만약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면 관리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능동장학회 홈페이지가 7월 중에 구축된다. 이제부터는 홈페이지(www.neungdong.or.kr)에 접속하면 능동장학회의 운영 현황을 볼 수 있게 됐다.

권행완 편집국장

## 안동 능곡회 38주년 기념 및 회장 이·취임식 거행



권광택 신임회장



제38회 창립 기념식 및 회장단 이취임식

일시 : 2024년 7월 27일(토) 장소 : 두리원회관 5층

2024~2025 축하임드림

제38회 회장 권정달

2023~2024 축하임드림

제38회 회장 권정달

2024~2025 축하임드림

제38회 회장 권정달